

목포교육장 심층면접·토론 앞두고 심사위원 신원 사전 유출

“주요 인사들 대부분 알고 있었다” ... 공정성 논란

전남도교육청이 처음으로 주민 추천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지역교육장 공모’가 심사위원 신원 사전 유출 의혹에 휘말려 물의를 빚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2일 목포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목포교육장 응모자 6명을 상대로 서류심사를 통한 후보자 압축에 이어 심층면접과 상호토론 등을 실시했다.

이날 면접심사에는 심사위원으로 도교육청의 당연직 위원 2명과 외부 인사 9명 등 모두 11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도교육청은 심사 전날인 1일 오후부터 심사 당일인 2일 새벽 사이 유선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심사위원에 선정된 인사들에게 심사 참가 통보를 했다.

그러나 목포 지역과 도교육청 안팎에는 이미 1일 오전부터 일부 심사위원의 이름이 오르내려 공모 자체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당초 심사의 공정성과 청탁 등에 따른 잡음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별 통보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외부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심사 전날 오후 유선을 통해 직접 통보했으며, 나머지는 당일 새벽 메일로 알려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목포교육장 교육장 심사 전날 오전부터 심사위원의 일부 명단이 지역 내에 알려지면서 사전 유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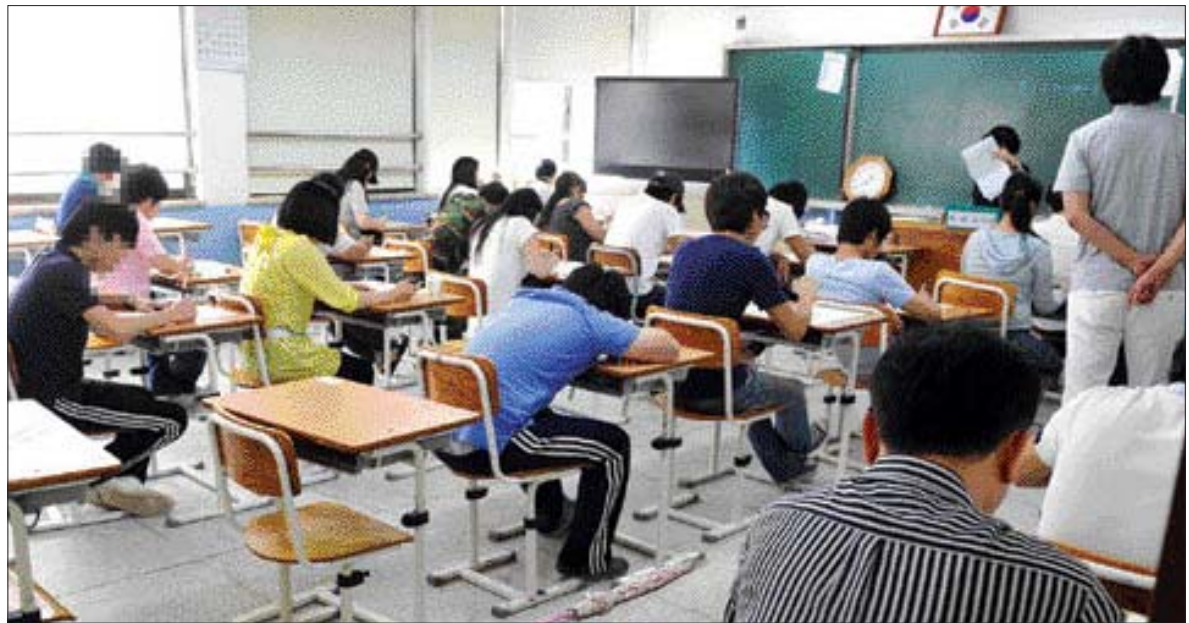
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전직 시의원 A씨가 1일 오전 지역 인사과의 조찬 모임 직후, 일부 지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자신과 또 다른 인사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말해 주위에 알려 목포지역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목포지역 모 고교 교사는 “심사위원의 사전 유출은 도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장 주민추천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만큼 심사위원에 대한 철저한 보안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남도교육청의 주민추천 교육장공모제 심사는 지난날 29일 해남을 시작으로 30일 무안, 2일 목포에 이어 3일 고흥과 4일 곡성에서 계속 진행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고졸 검정고시 2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광주공고에서 치러진 '2010 제2회 고졸 검정고시'를 보러온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이날 광주공고(고졸)와 화정중학교(고입)에서 치러진 검정고시에는 2000여명의 수험생들이 응시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경찰 정보공개 ‘낙제점’

10점 만점에 광주 5.4·전남 4.2점

광주·전남 경찰의 정보공개 점수는 1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될까?

광주경찰은 5.4점, 전남경찰은 4.2점으로 시·도민의 기대치에 절반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공개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각각 672건(청구 취하 등 140건 포함), 1070건(“ 335건)이었다.

이 중 청구내용이 전부 공개된 건수는 광주경찰이 366건(54.46%), 전남경찰이 450건(42.05%)으로 나타났다. 전부 공개 전국 평균은 49.33%(청구건수 2만9838건 중 전부 공개 1만4721건)이다. 또 비공개·부분 공개 처리된 건수는 광주경찰이 166건(24.69%), 전남경찰이 285건(26.62%)으로 파악됐다.

시·도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갈수록 증가한 반면, 경찰의 정보공개 수준은 청구인의 기대치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해당 기관의 구미에 맞는 정보만 선별해 제공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99엔 문제 특별법 제정하라”

시민모임, 일본정부 ‘지급 이익신청 기각’ 규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일 일본정부의 ‘99엔 지급 이익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강제연행하라는 법규정 없이도 끌고 갔으면서, 보상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난했다.

시민모임은 2일 서울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정부가 후생연금보험법에 탈퇴수당금 지급결정지 회폐가치를 환산하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 처분(후생연금 탈퇴수당금 99엔 지급 결정)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강제연행과 불법노역, 인권유린을 자행한 일본정부가 이제 와서 법 규정 핑계를 댄다”고

밝혔다.

이어서 시민모임은 ▲한일 양국이 외교적 채널을 통해 올해 안에 문제를 해결할 것 ▲일본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무조건적 배상 ▲일본정부의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근로정신대 출신 양금덕(82·광주시 서구) 할머니를 비롯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시민모임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 사회보형금의 결정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성명서를 일본대사관에 전달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43분 해질 19시 34분 달맞이 23시 31분 달지기 13시 08분

계속되는 폭염
가끔 구름 많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다.

구분	구름량	기온
광주	구름많음	26/34℃
목포	구름많음	25/32℃
여수	구름많음	25/29℃
완도	구름많음	25/33℃
구례	구름많고안개	25/34℃
해남	구름많음	25/33℃
장흥	구름많음	25/33℃
고흥	구름많음	24/32℃
순천	구름많음	25/34℃
영광	구름많음	26/33℃
진도	구름많음	25/33℃
전주	구름많음	25/33℃
남원	구름많고안개	24/32℃
목산도	구름많음	23/29℃

지역별 날씨: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분	종형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0.5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0.5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0.5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0.5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0.5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0.5m	☀️	🍷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4(수)	5(목)	6(금)	7(토)	8(일)	9(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26/33	24/33	24/31	25/31	25/32	25/32

동구청, 경로당 안전점검
광주 동구청(청장 유태영)은 구청 소유 97개 경로당에 대한 여름철 안전점검을 2일부터 13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다.

동구는 점검반을 별도로 편성해 ▲경로당 도우미 배치 및 근무상황 확인 ▲외식업체 배달 중식 안전성 여부 ▲가스 및 전기 안전 등 경로당 불안전 사항 확인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물 배부 ▲혹서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 등 경로당 주변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수현기자 yang@

북구청, 산업정책 ‘우수상’
광주시 북구는 (사)한국산업정책 연구원이 주최하고 지식경제부가 후원하는 제7회 지역산업정책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2004년부터 시행된 지역산업 정책 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의 자치단체 가운데 뛰어난 산업정책으로 지역발전을 이룬 곳을 발굴해 주는 상이다.

이번 평가는 ▲부존자원 ▲자원 및 관련산업 ▲경영여건 ▲시장환경 ▲근로자 ▲기업가 ▲전문가 등 7개 분야에서 이뤄졌으며, 북구는 지원 및 관련사업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종형기자 golee@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 전화 106-11-227-9940
☎️ 광주점 106-11-227-9970
☎️ 순천점 106-11-752-9940
☎️ 목포점 106-11-262-9200
☎️ 92산점 106-11-851-2422

SINCE 1988

대한민국대통령수제

칠만표 방수제

“재봉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알면 100% 판매중!!

최고품질 방수제는 가정용부터 산업용까지

목성, 지아섬, 목곡, 무지암, 속림 등 방수용 요하는 곳

방수제를 다하여 방수효과가 확실함을 믿습니다.

목곡을 칠하는 건축이나 방수공사는 방수 칠입니다.

광주 전남 가능장비

大山프리모남녀가발

가발

초슬림!!

가격 파괴

50만원

이동기능장비 현장 직립사수

이동기능장비 현장 직립사수